NH투자증권

# NH Morning Meeting Brief

## 주식전략/경제

| | | |
|---|---|---|
| 전략 인사이드/미국 | 다가올 美 정책 수혜주 찾기 | 조연주 |

## 산업/기업분석

| | | |
|---|---|---|
| LG생활건강 (Hold유지/TP:340,000원유지) | 대동소이 | 정지윤 |
| 닷밀 (Not Rated) | 빛으로 도시를 바꾸는 기업 | 백준기 |

NH Morning Meeting Brief는 당사 Research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www.nhqv.com)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동 자료상 투자의견이 제시된 기업 중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NH투자증권은 해당기업의 발행주식 등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주식전략/경제

### 전략 인사이드/미국

조연주 (02)768-7598)

### 다가올 美 정책 수혜주 찾기

원문보기

**중동발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높아지며 미국 주식시장은 전고점 돌파. 트럼프 대규모 감세안은 빠르게 추진 중. 7월 관세 이슈 재점화 및 밸류에이션 부담에 따른 주가 조정은 오히려 기회. 정책 모멘텀이 유효한 미국 주식시장에서 수혜 기업군을 제시**

- **7월 관세 정책 불확실성은 기회 요인**
  - 7월은 트럼프 상호관세 유예 종료에 따른 불확실성이 재차 확대 가능한 시기. 다만, 이러한 트럼프 패턴은 이미 확인. 2019년 중국 관세 유예 이후 협상 난항에 미국 주식시장은 등락을 반복하는 박스권 흐름 시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 저점은 계속 높아졌음
  - 트럼프 2기에는 학습효과로 이러한 불확실성 국면이 더 단축될 전망. 흔들릴 때가 오히려 기회

- **임박한 여러 정책 카드, 통화 + 감세 + 규제**
  - 트럼프 1기 국면에서 주식시장이 박스권을 뚫고 상승했던 시기는 2019년 9월 연준의 금리 인하 이후. 과거 지속적인 트럼프 관세 부과에도 주가지수는 오히려 상승. 트럼프 2기에는 통화정책 기대감 외에도 트럼프 대규모 감세안(OBBB) 통과가 임박. 통과 시 부채한도, 정부 셧다운 등 워싱턴 리스크 해소 가능. 또한, 미국 경기 둔화 압력을 약화시킬 전망
  - 한편, 하원 대비 상원 감세안 규모가 커지면서 금리 상방 우려 확대. 이는 오히려 금융 규제 완화 정책 속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이미 대형 은행들은 스트레스 테스트 기준 완화되며 2025년 배당 확대를 발표. 추후 SLR 및 자본금 규제 완화 등 공격적인 금융 규제 완화 정책 예상

- **트럼프 감세 정책 및 금융 규제 완화에 따른 수혜 기업 관심**
  - 트럼프 감세안에서 비중이 크게 늘어난 부분은 기업들에 대한 비용공제 혜택. R&D 및 기계 비용에 대한 감가상각 가속화가 핵심. CAPEX 투자 비중이 높고 과거 트럼프 1기 국면에서 수혜를 본 운송, 자본재, 유틸리티, 통신, 미디어/엔터 등 관심
  - 금융 규제 완화 및 새로운 코인 법안은 전에 없던 새로운 매출처 형성. 은행들의 자본력은 물론 주주환원정책 및 M&A 기회도 확대될 전망. 수수료 및 페널티 Fee 등이 추가 매출로 인식될 수 있어 은행 섹터에 관심 필요

## LG생활건강 (051900.KS/Hold유지/TP:340,000원유지/CP:324,000원)

정지윤 (02-768-7705)

대동소이

원문보기

**2분기 실적 컨센서스 하회 추정. 전통 채널 매출 감소와 글로벌 마케팅 투자 확대로 화장품 부문 수익성 하락 지속. 하반기 낮은 기저로 실적 회복 전망하나, 업종 내 성장률 측면에서 아직 열위라는 판단**

- **글로벌 마케팅 투자 지속**
  - 투자의견 Hold 및 목표주가 340,000원 유지
  - 2분기 면세, 방판 등 전통 채널 축소와 글로벌 마케팅 투자로 화장품 부문 수익성 하락 불가피. 하반기 실적은 낮은 기저로 회복 전망하나, 업종 내 성장률 측면에서는 아직 열위라는 판단. 동사는 LG전자의 홈 뷰티기기 '프라엘' 사업을 양수하며 미용기기 사업 본격화. 신사업과 글로벌 매출 확대 전략 구사해 나갈 전망

- **2Q25 Preview: 컨센서스 하회 추정**
  - 2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1조7,234억원(-2% y-y), 영업이익 1,300억원(-18% y-y)으로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 추정
  - 화장품 매출액 7,141억원(-6% y-y), 영업이익 468억원(-36% y-y) 추정. 면세점 1,331억원(-27% y-y)을 비롯 방판 등 전통 채널의 외형 축소 지속되나, 국내 H&B, 온라인 채널과 힌스 브랜드 고성장 중. 중국 매출은 1,621억원(-3% y-y)을 추정하며, 북미는 아마존 중심으로 두 자릿수 성장 이어갈 전망. 다만, 글로벌 매출 확대를 위해 마케팅 비용 확대는 불가피하기에 화장품 부문의 수익성은 전분기 대비 하락할 것으로 예상
  - 생활용품 매출액 5,403억원(+4% y-y), 영업이익 357억원(+5% y-y) 추정. 북미 닥터그루트, 일본 유시몰 등 프리미엄 제품군 글로벌 매출 확대 중. 음료 매출액 4,690억원(-2% y-y), 영업이익 476억원(-8% y-y) 추정. 성수기임에도 비우호적인 날씨와 소비 위축 영향으로 매출 감소 및 원가 부담 지속

LG생활건강 2분기 실적 Preview (K-IFRS 연결) (단위: 십억원, %)

| | 2Q24 | 3Q24 | 4Q24 | 1Q25 | 1Q23E | | | | | 3Q25F |
|---|---|---|---|---|---|---|---|---|---|---|
| | | | | | 예상치 | y-y | q-q | 기존추정 | 컨센서스 | |
| 매출액 | 1,760 | 1,714 | 1,610 | 1,698 | 1,723 | -2.1 | 1.5 | 1,730 | 1,751 | 1,739 |
| 영업이익 | 159 | 106 | 43 | 142 | 130 | -18.0 | -8.7 | 143 | 142 | 137 |
| *영업이익률* | *9.0* | *6.2* | *2.7* | *8.4* | *7.5* | | | *8.2* | *8.1* | *7.9* |
| 세전이익 | 150 | 104 | -84 | 142 | 128 | -14.3 | -9.8 | 141 | 139 | 133 |
| (지배)순이익 | 100 | 68 | -86 | 98 | 88 | -12.7 | -10.8 | 96 | 90 | 87 |

자료: FnGuide,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전망

• 당사는 'LG생활건강' (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의 발행회사 및 LP(유동성공급자)임을 알려드립니다.

**닷밀** (464580.KQ /Not Rated/ CP:2,845원)

백준기 (02-768-7066)

## 빛으로 도시를 바꾸는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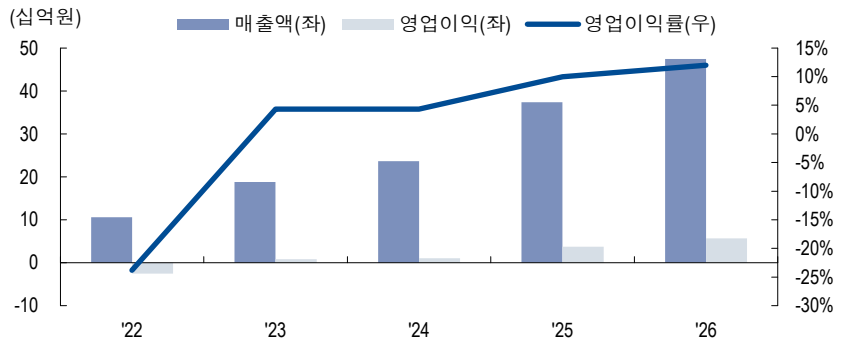
원문보기

**실감미디어 기술과 콘텐츠를 기반으로, 국내외 B2G, B2B, B2C 시장을 공략 중. 단순한 전시 연출이 아닌 기획, 시공, 운영, IP 확장까지 수직계열화된 밸류체인을 보유. 글로벌 테마파크 진출 등 글로벌 확장 추진 중**

- **실감미디어 산업 성장과 해외 확장 기대**
  - 실감미디어 기반의 공간 콘텐츠 전문기업. B2G/B2B/B2C를 아우르는 사업 구조 보유. 루나폴, 워터월드 등 자체 브랜드형 테마파크와 함께 DDP 서울라이트, 평창올림픽 등 프로젝트를 수행. 경쟁업체인 디스트릭트는 예술기반 몰입 콘텐츠에 특화된 반면, 닷밀은 공간기획형 복합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차별화
  - 조달청 통한 B2G 사업은 연평균 30% 고성장 중이며, 수익성이 높고 레퍼런스 기반 사업. 워터월드, 루나폴 등 독자 테마파크 운영하는 B2C 사업은 올해 매출 150억원 예상. 브랜드 전시 및 콘텐츠 납품 담당하는 B2B 사업은 규모가 작지만 수요처 확대 추세로 고성장 기대. 세 영역은 단일 사업 리스크를 낮추는 역할
  - 글로벌 실감미디어 시장 규모는 2021년 420억달러에서 2026년 1,700억달러로 고성장할 전망. 동사는 테마파크 등 글로벌 확장 중으로 필리핀, 태국 포함 아시아권을 비롯해 미주권까지 진출. IAAPA Expo ASIA에도 참가하는 등 글로벌 확장을 위한 접점을 확대 중

- **실적은 가파르게 개선 중**
  - 실적 턴어라운드 구간 진입. 또한 외주용역비 축소, 콘텐츠 제작 리드타임 단축 통해 비용 효율화 진행 중. 수주잔고는 100억원 이상 확보. 2025년 전사 매출 373억원(+58.0% y-y), 영업이익 37억원(+264.6% y-y) 예상

B2G/B2C/B2B 각각 수요 확대에 따른 고성장 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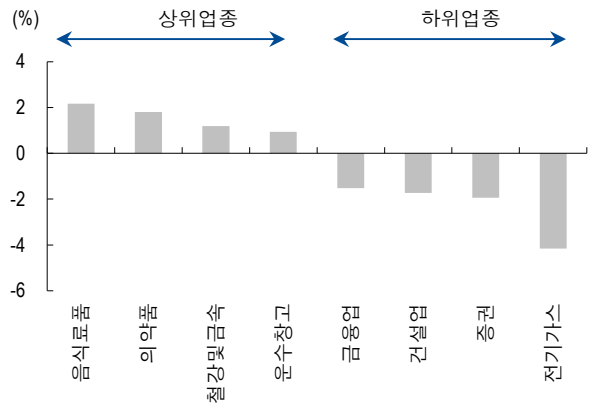

자료: 닷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전망

• 본 자료는 당사 공식 Coverage 기업의 자료가 아니며,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참고자료입니다. 따라서 당사의 공식 투자의견, 목표주가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 Domestic Mark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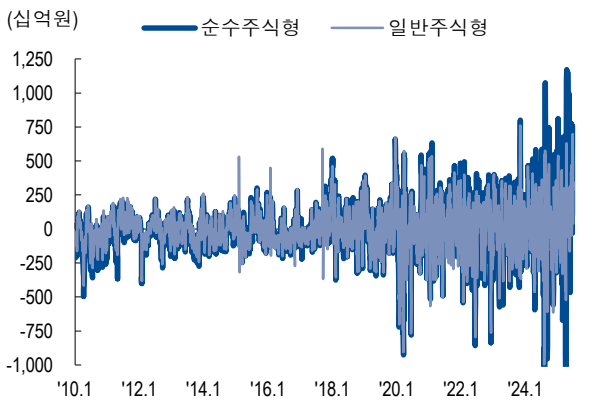
| Trading Summary | | Index 2-Jul | 1-Jul | 30-Jun | 27-Jun | 26-Jun | Performance/Spread 1Day | 1Week | 1Month | 1Year |
|---|---|---|---|---|---|---|---|---|---|---|
| 거 | 주가지수(P,%) | 3,075.06 | 3,089.65 | 3,071.70 | 3,055.94 | 3,079.56 | -0.47 | -1.07 | 13.93 | 10.58 |
| 래 | 거래량(백만주) | 697 | 576 | 464 | 382 | 461 | 121 | 198 | 128 | 233 |
| 소 | 거래대금(십억원) | 14,830 | 15,185 | 13,334 | 13,970 | 17,031 | -355 | -414 | -188 | 4,326 |
| 코 | 주가지수(P,%) | 782.17 | 783.67 | 781.50 | 781.56 | 787.95 | -0.19 | -2.01 | 5.66 | -5.75 |
| 스 | 거래량(백만주) | 946 | 971 | 801 | 889 | 939 | -26 | 10 | -80 | 49 |
| 닥 | 거래대금(십억원) | 5,437 | 6,092 | 6,296 | 5,628 | 6,239 | -655 | -559 | -1,608 | -1,433 |
| **투자자별순매수(순매도)** | | | | | | | | | | |
| 거 | 외국인(십억원) | -328 | 176 | -649 | -858 | -579 | -328 | -2,238 | 2,406 | -32,924 |
| 래 | 국내기관(십억원) | 72 | 474 | 476 | 343 | -408 | 72 | 958 | -1,262 | 16,287 |
| 소 | 개인(십억원) | 233 | -641 | 189 | 487 | 833 | 233 | 1,101 | -1,087 | 6,004 |
| 코 | 외국인(십억원) | -190 | -32 | -18 | -224 | -167 | -190 | -631 | -279 | -1,334 |
| 스 | 국내기관(십억원) | 17 | 55 | 54 | 47 | -56 | 17 | 117 | 269 | -642 |
| 닥 | 개인(십억원) | 171 | -31 | -12 | 186 | 238 | 171 | 552 | 294 | 4,481 |
| **Market Indicators** | | | | | | | | | | |
| | 3년만기 국고채(%,%P) | 2.48 | 2.45 | 2.45 | 2.45 | 2.45 | 0.03 | 0.02 | 0.14 | -0.69 |
| | 3년만기 회사채(AA-)(%,%P) | 2.98 | 2.96 | 2.96 | 2.97 | 2.97 | 0.02 | 0.00 | 0.06 | -0.65 |
| | 콜금리(%,%P) | 2.48 | 2.50 | 2.57 | 2.47 | 2.49 | -0.02 | -0.04 | -0.05 | -1.00 |
| | 시가총액(조원) | 2,922 | 2,934 | 2,918 | 2,906 | 2,928 | -12.04 | -34.78 | 327.64 | 251.20 |
| | 원/달러 환율(원,%) | 1,358.70 | 1,355.90 | 1,350.00 | 1,357.40 | 1,356.90 | 0.21 | -0.27 | -1.05 | -2.13 |
| | 원/100엔 환율(원,%) | 943.01 | 940.65 | 938.98 | 939.26 | 938.20 | 0.25 | 0.12 | -1.44 | 10.24 |
| **증시주변자금** | | | | | | | | | | |
| | 고객예탁금(십억원) | - | 70,413 | 68,972 | 67,713 | 69,056 | - | 3,736 | 10,225 | 14,254 |
| | 미수금(십억원) | - | 986 | 1,044 | 1,046 | 986 | - | 12 | 99 | 56 |
| | 신용잔고(십억원) | - | 20,735 | 20,639 | 20,530 | 20,383 | - | 311 | 2,520 | 823 |
| | 순수주식형수익증권(십억원) | - | 147,899 | 147,278 | 147,012 | 146,834 | - | 548 | 8,033 | 30,255 |

### Daily Sector Performance




자료: KRX

### Domestic Equity Fund Flow




자료: AMAK, Zero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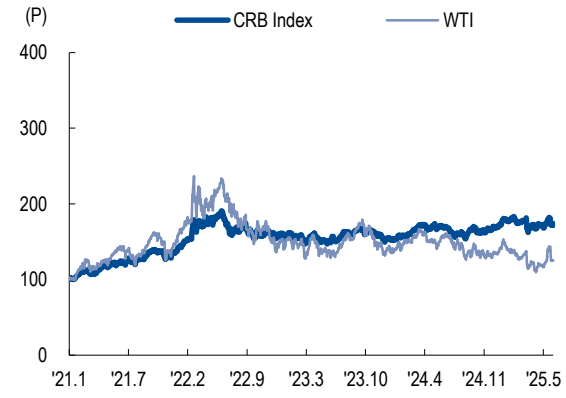
## Global Market

| | | Index | | | | | Performance/Spread | | | |
|---|---|---|---|---|---|---|---|---|---|---|
| 해외주요증시 | | 2-Jul | 1-Jul | 30-Jun | 27-Jun | 26-Jun | 1Day | 1Week | 1Month | 1Year |
| 미국 | NASDAQ(P,%) | 20,393 | 20,203 | 20,370 | 20,273 | 20,168 | 0.11 | 3.88 | 6.69 | 15.00 |
| | S&P500(P,%) | 6,227 | 6,198 | 6,205 | 6,173 | 6,141 | 0.36 | 3.36 | 5.34 | 14.05 |
| | Dow Jones(P,%) | 44,484 | 44,495 | 44,095 | 43,819 | 43,387 | 0.88 | 4.47 | 5.24 | 13.72 |
| 유럽 | 영국(P,%) | 8,775 | 8,785 | 8,761 | 8,799 | 8,736 | 0.16 | 0.19 | 0.03 | 7.48 |
| | 독일(P,%) | 23,790 | 23,673 | 23,910 | 24,033 | 23,649 | -0.50 | 2.24 | -0.86 | 30.46 |
| 아시아 | 일본(P,%) | 39,762 | 39,986 | 40,487 | 40,151 | 39,585 | -1.79 | 3.67 | 4.73 | 0.45 |
| | 대만(P,%) | 22,578 | 22,554 | 22,256 | 22,580 | 22,492 | 1.45 | 3.89 | 5.76 | -1.97 |
| | 중국(P,%) | 8,725 | 8,678 | 8,678 | 8,762 | 8,804 | 0.54 | 1.48 | 3.47 | 37.79 |
| | 인도(P,%) | 83,410 | 83,697 | 83,606 | 84,059 | 83,756 | -0.24 | 1.85 | 2.40 | 5.54 |
| 라틴 | 멕시코(P,%) | 58,347 | 57,814 | 57,451 | 57,392 | 57,474 | 1.56 | 4.01 | 0.87 | 11.26 |
| | 브라질(P,%) | 139,051 | 139,549 | 138,855 | 136,866 | 137,114 | 0.14 | 1.83 | 1.48 | 12.22 |
| 국제금리 및 환율 | | | | | | | | | | |
| 금리 | 미국채 10년(%,%P) | 4.28 | 4.24 | 4.23 | 4.28 | 4.24 | 0.05 | -0.07 | -0.12 | -0.12 |
| | 스프레드(10년-2년) (%,%P) | 0.49 | 0.47 | 0.51 | 0.53 | 0.52 | -0.02 | 0.01 | -0.01 | 0.85 |
| 환율 | 엔/달러(엔,%) | 143.66 | 143.42 | 144.03 | 144.65 | 144.42 | -0.26 | -1.70 | -0.25 | -10.70 |
| | 달러/유로(달러,%) | 1.18 | 1.18 | 1.18 | 1.17 | 1.17 | 0.10 | 1.91 | 3.98 | 10.14 |
| 국제 원자재 가격 | | | | | | | | | | |
| | CRB Index(P,%) | 301 | 296 | 297 | 300 | 298 | 1.15 | -1.42 | 3.54 | 3.53 |
| | WTI ($/Barrel,%) | 65 | 65 | 65 | 66 | 65 | 0.52 | -5.99 | 7.67 | -19.73 |
| | Gold ($/Troy Ounce,%) | 3,357 | 3,339 | 3,303 | 3,274 | 3,328 | 1.64 | -0.33 | 2.07 | 44.30 |
| | 구리($/Metric ton,%) | 9,943 | 9,943 | 9,878 | 9,879 | 9,896 | 0.66 | 2.56 | 4.70 | 3.72 |

| | 1Week (%,%P) | | | 1Month (%,%P) | | | PER (배) | |
|---|---|---|---|---|---|---|---|---|
| Global Company Performance | 해외 | 국내 | Gap | 해외 | 국내 | Gap | 해외 | 국내 |
| Intel/삼성전자 | 3.26 | 4.83 | -1.57 | 11.92 | 8.19 | 3.73 | - | 12.28 |
| Micron Technology/SK하이닉스 | -0.28 | 7.51 | -7.79 | 28.88 | 36.43 | -7.55 | 173.91 | 9.71 |
| Philips/LG전자 | 6.67 | 2.01 | 4.66 | 2.67 | 7.17 | -4.51 | - | 37.43 |
| NTT Docomo/SK텔레콤 | 0.00 | 3.21 | -3.21 | 0.00 | 12.43 | -12.43 | 13.00 | 10.02 |
| Google/NAVER | 8.28 | -13.10 | 21.39 | 4.00 | 34.40 | -30.40 | 21.97 | 19.84 |
| Toyota/현대차 | -1.12 | 5.96 | -7.08 | -10.96 | 15.22 | -26.18 | 6.86 | 4.48 |
| Nippon Steel/POSCO | 2.17 | 13.61 | -11.44 | -6.09 | 15.20 | -21.29 | 7.78 | 19.93 |
| Exxon Mobil/SK이노베이션 | -0.62 | 0.00 | -0.62 | 8.55 | 0.00 | 8.55 | 14.16 | - |
| Singapore Airlines/대한항공 | 4.91 | 8.84 | -3.93 | -1.12 | 4.00 | -5.12 | 7.89 | 6.56 |
| Mitsubishi Heavy/현대중공업 | 1.74 | -8.39 | 10.13 | 4.53 | 8.69 | -4.15 | 47.97 | 20.7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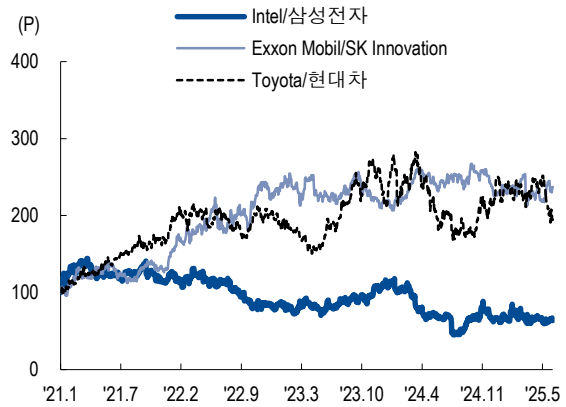
주: 해외=해외주식의 수익률, 국내=국내주식의 수익률, Gap=해외와 국내주식의 수익률의 차

## Global Commodities Price Trend




자료: Bloomberg, Dramexchange

## Global Company Relative Performance




자료: Bloomberg

**〈종목 투자등급 (Stock Ratings)〉**

- 투자등급(Ratings): 목표주가 제시일 현재가 기준으로 향후 12개월간 종목의 목표수익률에 따라 Buy(15%초과), Hold(-15%~15%), Sell(-15%미만)로 구분

- 본 조사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결정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